

春園의 初期文學論

吳 養 鎭

I

春園의 初期 文學論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太極學報 1908) 「今日我韓青年과 情育」(大韓興學報 1910) 「文學의 價値」(同 1910) 「文學이란 何오」(每日申報 1916) 등이 있다. 그 외 <學之光> 등 잡지에 발표한 論說들이 있으나, 크게 관심돌만한 대상은 못 된다.

本稿는 「今日我青年과 情育」 「文學의 價値」 「文學이란 何오」를 中心으로 春園의 初期文學觀을 검토코져 한다. 연대를 굳이 「文學이란 何오」(1916)以前으로 한정 한 것은 1917년의 「無情」—소위 한국현대소설의 효시, 또는 開化期 小說로 논의되는—의 發表年代 以前으로 잡음으로써 「無情」의 의미를 필자 나름대로 시도해 보고져 함에 서다. 또 이것은 「無情」을 究明하는데 그 作品前의 文學論이 그 作品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文學史에서 볼 때도 上記한 논문들은 重要的 意味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初期文學論을 外來영향사로 봄으로써 前者의 경우 일어나는 傳統단절론까지 비약하는 극단론을 예비관하는 문제성을 발견해 보자는 의도도 또한 포함된다.

春園의 많은 作品 못지않게 지금까지 文學研究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 春園의 上記한 論說들에 대한 착실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韓國 近代文學의 初期의 논리나 「無情」을 둘러싼 잡다한 論理들은 其實 절도는 애기로 남아 있는 듯한 인상 마저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上記한 小說文들에 대한 검토는 또 다른 意味를 지닌다. 그리고, 1910年代의 文學論의 정리가 20年代로 넘어오면서 深化되어가는 과정을 염두에 둘 때, 20年代 金東仁의 春園에 대한 도전적 文學觀을 이해하는 데도 이 作業은 그 前事로 규명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本稿는 75年度 前學期(博士學位課程) 批評文學論 Report로 作成 한 것의 一部임. 따라서, 아직 完全한 論文이라기보다 앞으로 研究를 前提로한 試論의 범위에 머문다.)

II

「今日我青年과 情育」, 「文學의 價値」, 「文學이란 何오」中 中心을 이루는 것은 「文學이란 何오」다. 이 글은 11個項으로 되어있다. 우선 이 글을 분석 요약하면,

① 新舊意義의 相異

文學이라는 語는 在來의 文學으로서의 文學이 아니요, 西洋의 literatur或은 literature라는 語를 文學이라는 語로 번역하였다 함이 적당하다.

② 文學의 定義

「文學이란 特定한 形式下에 人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한 자」이다. 여기서 「特定한 形式」이란, 文字로 기록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口碑傳說은 文學이 아니라고 함. 그리고, 詩, 小說, 劇 評論 이의 物理, 博物, 地理, 歷史, 法律, 倫理 등은 文學이 아니라 科學이다.

③ 文學과 感情

知情意에서 「情」은 知意의 노예에 불과하던 자가 約 五百年前 文藝復興이라는 인류정신계의 대변동이 有한 以來로 情에게 獨立한 地位를 與하여 知나 意와 平等한 待遇를 하게 되다. 呑人이 酒를 受하고, 色을 貪하며 風景을 求함이 實로 情의 要求를 滿足케 하려는 데서 生하는 것이니, 文學藝術은 實로 此要求를 充하려는 使命을 有한 것이다.

④ 文學의 材料

文學藝術은 某材料를 全혀 人生에서 취하라. 人生의 生活狀態와 思想感情이 即 某材料나 此를 描寫하면, 即 人生에게 快感을 與하는 文學藝術이 되는 것이다.

⑤ 文學과 道德

朝鮮文學은 散文, 韻文을 勿論하고, 儒教道德을 骨子로 삼았기에 萬卷文學書가 有하더라도 千篇一律이다.

⑥ 文學의 實效

人間에는 知·情·意 三方面이 있다.

(ㄱ) 知→眞理···科學者

情→美···文學者, 藝術家

意→善 또는 義···宗教家, 道德家.

(ㄴ) 첫째—文學은 人生을 描寫한 자이므로, 世態人情을 안다.

둘째—人情世態를 이해함으로 德과 同情心이 發하므로 부자가 빈자

를, 貴者가 賤者를, 善者가 惡者를 동정하게 됨.

셋째—一人이 向上進歩하는 心理狀態를 目睹하여 足히 모범을 삼을지며
넷째—不如意한 實社會를 脫하여 自由로운 想像의 理想境에 소요하
여 有限한 人生에서 경험 못할 상상과 . . . 경험함.

다섯째—有害한 快樂에 빠질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이 文學이요,
여섯째—性品 陶冶, 知能啓發을 함.

⑦ 文學과 民族性

朝鮮人은 舊衣를 脫하고 舊垢를 洗한 後에 此 文明에 全身을 沐浴하고,
自由롭게 된 정신으로 新精神의 文明의 創作에 착수할 지어다. 併合以來로
萬般文物制度가 悉皆 新文明에 依據하였거니와 사상 감정과 此를 응용하는
生活은 依然한 舊阿蒙임을 개탄한다.

⑧ 文學의 種類

① 範圍를 표준으로 한것—國民文學, 鄉土文學, 都市文學, 田園文學,

② 性質을 표준으로 한것—歷史文學, 宗教文學, 戀愛文學, 時代文學,

「이것은 엄정한 分類法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③ 형식에 依해 분류하면,

論文—歸去來辭, 赤壁賦, 離騷經, 칼·라일 에머슨등의 저서, 곧<말하듯
이> 쓴 글.

小說—朝鮮에서 <才談>이나, <이야기>를 小說이라 함은 無識한 소치
다. <小說이라 함은 人生의 一方面을 正하게 精하게 描寫하여 독자의 안전
에 作者의 想像內에 在한 世界를 如實하게, 歷歷하게 開展하여 독자로 하여
금 其世界內에 在하여 實見하는 듯한 感을 起케하는 者를 謂함>

劇—散文劇:(희곡과 同意語로 보고 있다.)

詩 劇:(여기에 대한 논급은 없다.)

詩—散文을 「읽는 것」이라 한다면 詩는 「 읊는 것」이다. 散文이 人生의 一
方向 或은 作者의 想像內의 세계를 如實하게 描出하여 一切의 판단, 즉, 美
醜, 快, 不快의 판단을 일일히 독자의 의사에 임하는 것이라면, 詩는 「作者
가 人生의 一方向 又是 自己의 想像內의 世界中에 最히 흥미 有한 者를 選
出하여 音律 좋은 언어로 此를 描出하여 讀者로 하여금 咨嗟咏嘆케 하는 것」
이라고 함.

⑨ 文學과 文

文: 「文學이란 內容을 담은 器」

朝鮮서는 古來로 漢文이 아니면 文이 아닌 줄로 思하여 「文即 文學」으로

思하여 이것이 文學의 發達을 沮害했다. 論語나 孟子를 貴重함은 그 文을 貴重함이 아니라, 그 내용된 사상을 貴重함이다. 그러므로 난삽한 한문을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 것을 버리고 우리의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文學을 大開시키자. 日本은 30여년 前에 言文一致를 주장한 以來로 科學書 政治論文 등에 순 現대어를 채용함으로써 日本文化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 故로 新文學은 반드시 純現代語, 日用語, 即 今阿어이나 知하고 用하는 語로 作할 것이다.

⑩ 文學과 文學者

文學者— 1. 文學者는 특수한 天才를 요함.

나. 天才만으로 안되고 修養을 해야 된다.

다. 稟天才, 積修養, 取材料, 成腹案及 作業의 階 단계—文學者.

르. 文學者는 貧窮과 配偶다.

미. 재미있는 文學은 大文學이다.

⑪ 朝鮮文學

朝鮮文學이란 조선인이 조선文으로 作한 文學을 말한다.

㉠ 吏讀文은 朝鮮文으로 「향가」는 朝鮮文學이다.

㉡ 高麗~이조, 世宗~朝鮮文으로는 칭할자 無함.

㉢ 龍飛御天歌은 朝鮮文學의 효시다.

㉣ 退溪, 栗谷 등 중국 숭배자나, 과거제도등이 朝鮮文學의 발전을 방해했으나, 耶蘇敎의 수입은 朝鮮文의 보급에 至大한 공로다.

㉤ 一齊, 何夢 諸氏의 번역문학도 조선문학의 기운을 促하기에 意味가 深하나 일변 문학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 조선귀족의 生活, 신식가정의 생활 신구사상의 충돌, 조선 야소교인의 사상과 生活, 기생, 방탕한 귀공자, 빈민의 生活, 서북간도의 생활, 경성, 평양, 개성 등 古都의 味, 작성한 신 조선인의 심사와 감상등 무한한 好題目이 있으니 이를 天才가 출현하여 朝鮮의 文學野를 개척할지라 「文學이란 何오」의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意義를 가지고 있다.

III

問題點 • 1. <文學이란 何오>

(1) 文學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서구적인 개념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은

① 從來 우리가 가지고 있던 文學觀을 一見 거부하고, 새로운 文學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意志의 表現이며 또한 그 實行的 첫 단계다. 春園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文學의 지속성을 단절시키는 否定的 態度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理論」은 作品創作 이전에 벌써 西歐化 일변도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無情」을 읽었을 때, 전반부에서 박영채를 통해서 한문식 유교식,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작자를 발견한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김병욱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우리가 외래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어떤 방향으로 기존문화를 변형시켜야 한다는 방향설정이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을 때, 의식의 이중구조 속에 분열을 일으켜 급기야 自己否定으로 나타난 예다. 아무리 새로운 소재를 채택하고, 주제를 연역하려고 해도 아직도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에 뿌리박은 권위주의, 보수주의가 남아있는 한 春園의 생경한 西歐化主義는 개화기적인 상태에서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그의 文體를 두고 이야기 할 때 더욱 뚜렷이 들어나는 일면이다. 다시말해서 「무정」을 한국 최초의 장편 현대소설이란 투의 발언은, 「文學이란 何오」등에 나타나는 先驗된 觀念이 우리 문학과와의 지속적인 검토없이 외래영향사 및 피상적인 관찰로 야기된 결과다.

② 文學을 literature literature라는 語를 「文學」이란 말로 번역한 것이며, 이는 語同意異한 신어의 하나이며, 「文學者란 人에게 某事物에 關한 知識을 教하는 者가 아니요, 人으로 하여금 美感과 快感을 發케 할 만한 서적을 作하는 人」이란 논설은 春園이 항상 자신을 文學者로 한정하기를 거부하고, 文學作品을 餘技로 보고, 카멜레온적 태도를 취한 그 암시가 깔려있다.

즉, 「知識을 教하는 者가 아니」란 말 속에는 ①에서 말한 것 처럼 外來文化를 받아들일 때에 어떤 方向으로 기존문화를 변형시켜야 한다는—한 민족의 선자자로 자임하고 나섰다면 응당 지녀야 할 作家의 고정된 文學觀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美感과 快感을 發케 할 만한 서적을 作하는 者」란 언급은 그가 文學을 항상 思想 傳道의 방편으로 쓴 입장과는 相異한 점이다.

(2) 文學의 定義

여기서는 文學의 정의를 협의로 내리고 있다. 먼저 文學은 文字로 기록함을 전제로 하여 詩, 小說, 劇, 評論 이외는 文學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口碑傳說是 文學이 아니라는 結論에 도달한다.

文學(Literature)은 라틴어의 (littera)에서 온 말인데, 原來의 뜻은 文法

記錄된 知識・讀書의 能力 등을 包含한 뜻이다. 이와 같이 文學이라는 말은 廣範한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文字로 기록된 모든 것을 다룰 때, (belle-ethros)나 (Imaginative literature)의 뜻이 不分明하게 된다. 그러나, 實際로 文學이라고 말할 때, 記錄되지 않은 流動文學(current literature)까지도 文學에 포함된다. (李在銑・申東旭:文學의 이론) 이런 광의의 뜻을 암시하면서 협의의 文學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문학적 수준으로서는 卓見이다.

(3) 文學과 感情

近世에 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知, 情, 意로 보고, 情을 강조하고 나온 것은 儒敎主義의 文學觀에서 탈피의 실제적인 선언이다. 春園의 이러한 態度는 純粹文學의 立場에까지 指向한다. 그러나, 그러한 「情」의 宣言의 저변엔

「가령 戀愛라 하고 戀愛中에도 上流社會, 上流社會中에도 有教育者, 有教育者中에도 父母의 許諾을 得키 不能한 者의 戀愛를 과연 如實하게 眞인 듯하게 描寫하여……」(「文學이란 何오」)

라는 논리와,

「吾人이 酒을 愛하고 色을 貪하며 風景을 求함이 實로 情의 要求를 만 족케 하려는 데서 生하는 것이니 文學藝術은 實로 此要求를 充하려는 使命을 有한 것이니라……」(文學이란 何오)라는 主唱은

「영채는 그 악한에게 붙들려 장차 어찌되려는가. 그 악한은 영채의 어여쁜 태도를 탐하여 못된 욕심을 채우려는가 또는 영채의 몸을 팔아 술과 노름의 밀친을 만들려 함인가……」(「無情」)

라는 두의 文脈으로 연결됨으로써 당시 儒林들의 반발을 자아낸다. 그것은 지나친 反儒敎主義의 異性間的 파격적인 묘사가 「우리는 先祖도 없는 사람(어떤 意味로는)으로 今日 今時에 天上으로서 吾土에 降臨한 新種族으로 自處하여야 한다……」(「子女中心論」)는 論理인 파거부정적 민족개조론으로 나타남으로써 依存的 開化思想으로 까지 해석된다.

(4) 文學의 材料

文學藝術의 材料를 전혀 人生에서 취할 것과 형식면에서도 人生 描寫論을 주장한다. 人生의 生活狀態와 思想 感情을 描寫하면 人生에게 快感을 與하는 文學藝術이 된다고 主唱한다. 이런 태도는 곧 그의 戀愛讚美, 연애지상주의적 태도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이 項은 또 휴머니즘적 태도(人生을 描寫하면……)와 文學의 原論的인 면에서 그의 一般의 文學觀과는 相異한 側面을 시사하기도 한다.

(5) 文學과 道德

「文學이란 何오」에서 가장 강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文學과 道德의 문제다. 그 대상은 바로 儒敎主義의 道德觀의 청산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李光洙가 가지고 있는 西歐에의 콤플렉스가 전적으로 儒敎主義의 안티·테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傳統의 家族制度를 비판하면서 그 主體를 이루고 있는 「孝」를 비판한다. 말하자면 「孝」가 가지고 있는 過去志向의인 態度가 근대화를 저해하는 가장 강한 요소라는 논리다.

「無情」보다 1년 후에 발표된 「子女中心論」은 西歐의 家族制度를 先驗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無情」이나 「子女中心論」이 前代의 依存的 開化主義인 新小説의 思想, (예를 들어 自由論과 子女中心論의 主題)에 끈을 달고, 단순한 서구화추종의 결과, 「孝」를 비판함으로써 他律에 依한, 환언하여 그 기저에 일관하고 있는 공통의 저류가 서구에서의 차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로하여금 가치와 도덕을 창조하는 本質的 次元에서 유지되어 유행성에 흐르는 카메레온적 변모를 또한 연출한다.

다음 自由戀愛思想도 其實 우리것에 대한 反發의 결과란 말은 前述한 바와 같다. 부연이 허락된다면 春園 自身은 「誤解」를 免하기 爲하여 一言을 添하노니 道德의 束縛을 脫하라 함은 決코 讀者를 蠱惑할 만한 淫談悖說을 材料로 한 文學을 作하라 함이 아니요, 道德律을 考慮함이 無이 癖의 眼中에 映來하는 人事現象을 如實하게 描寫하라 함이니……」(「文學이란 何오」)라고 말하고 있으나, 春園의 이런 언설이 當代 儒林들이나, 유교적 풍토에서 생활해온 대부분의 大衆들에게 淫說처럼 들림으로써 一民衆들의 先驗된 논리로서가 아니라, 先觀念의 태도에 치우침으로써 민중의식을 결한 小英雄主義의 한계에 머무르고 말았다.

(6) 文學의 實效

文學의 目的은 情의 滿足이지만, 이 本質의이고, 根本的인 目的 이외에 다른 6個項의 實效를 들고있다. 이런 점은 春園이 文學을 通한 社會教化란 後期文學의 一貫性的 性格을 시사하는 春園文學論의 다른 하나의 原型이 된다.

(7) 文學과 民族性

進步하는 一代의 思想과 感情과 生活方式는 其代 全民族이 연구하고, 조탁하고, 修練한 結果니, 此는 無限한 苦心과 勞力의 結晶이다. 이 貴重한 精神의 文明을 傳하는데 最히 有力한 者는 即 其 民族의 文學이니, 文學이 없는 민족은 야만성을 면치 못한다고 전제하고, 併合以來로 萬般 文物制度

가 悉皆 新文明에 의거하였거니와, 思想 感情과 此를 응용하는 生活은 依然한 舊阿蒙이니, 從此로 新文學이 蔚興하여 新하여져 朝鮮人의 사상감정을 발포하여서 後代에 傳할 第一次의 遺産을 作하여야 할지라.

上記文中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 ㉠ 한·일합방에 대한 당위론적, 내지는 찬성론적 저의가 나타나 있고,
- ㉡ 이를 基點으로 새로운 文化를(文學을) 수립해 보자는 암시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은 「無情」때부터 依存的 開化思想을 인정하는 親日的 색채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後期の 변질을 암시하는 伏線이 이미 잉태해 있다고 볼 수 있다.

(8) 文學의 種類

春園의 「文學이란 何오」가 坪內逍遙의 「小説神髓」와 닮아 있고, 「小説神髓」(1885)보다 31년이나 늦게 나왔으나 독창적인 면이 멀어진다(金允植)는 말과는 無關하게, 우리 文學에서 이정도 文學장르론을 당시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예는 없다. 「才談」이나 「이야기」를 小説이라 함은 無識의 소치란 말 속에 역시 서구문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古代小説의 구성을 매도하는 태도다.

그리고 論文의 예로 歸去來辭, 赤壁賦 離騷經 등을 들고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논문, 批評文, 評論文을 同義語로 보고있는 점은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바로 본것이라할 수 있다. 詩劇에 대한 논급이 없는 것은 春園의 지식의 한계점을 말하는 점이 되겠고, 俳優를 옛날 「광대」와 구분해서 美術家나 文學家와 同一한 차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구의인 면을 민감히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리고, 範圍를 표준으로 國民文學, 鄉土文學, 都市文學式으로 나눈 것이나, 性質을 表準으로 歷史文學, 宗教文學式으로 나누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9) 文學과 文

文이란 文章 혹은 文體를 뜻한다. 新文學은 반드시 純現代語, 日用語라야 한다. 이런 言文一致를 주장하는 것이나, 漢文式 표기를 버리고 우리의 글을 씀으로써 신문학을 건설하자고 제안한 점 등은 실제 그의 文筆生活과는 동떨어져 있다. 日本은 30여년 前에 言文一致를 實行함으로써 日本文化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自身の 글이 많은 어려운 한자와 비록 한글로 쓰였다 하더라도 한문숙어 등을 빈번히 쓴 점은 理論과 實際가 유리된, 同語反復이 되겠지만 우리문학의 持續的인 요소를 사실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外來的인 것만 추종함으로써 피상적인 西歐化, 새로운 事大主義

化로 멀어지고만 방증으로 나타난다.

(10) 文學과 文學者

이 점에서 짙게 나타나는 면은 文學人의 굉장한 자부심, 선택된 인간이란 특권의식에 빠진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점은 春園 小說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얼마가 自傳的 면모를 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상이란 점과 상당한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文學者는 天才만으로 안되고 修養을 해야 한다는 면은 後期 「文士와 修養」의 원형이 되어 있고, 文學者는 貧窮과 配偶 다란 말속엔 다른 하나의 불건전한 당대 문인들의 사고방식을 나타낸 말이다.

(11) 朝鮮文學

여기서 鄉歌를 조선문학으로 본것, 고려에서 이조에 이르는 한문학시대를 조선문학에서 빼버린 것, 龍飛御天歌를 조선문학의 효시로 본것, 返·栗과 중국 숭배 과거제도가 朝鮮의 文學發展을 방해하였다는 것등은 상당히 엄격하고 과학한 國文學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耶蘇敎의 수입은 朝鮮文의 보급에 至大한 공로가 있었다는 발언은 反封建·脫儒敎主義란 점에선 評價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西歐化 第一主義의 新事大主義의 根源의 要因으로 文學에 누를 끼쳤다는 점은 지탄받아야 할 文學觀이다. 말하자면 春園은 文學의 發展이 개념규정과 양식규정이면서 동시에 종적인 요인과 횡적인 영향이 내면화로 나타나 참다운 文學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못하고 西歐추종주의로 나타나 이 나라 文學史가 外來 영향사로 남게 만든 최초의 소인을 여기에 깔고있다.

IV

「今日我青年과 情育」(1910)

이 글은 時論이다. 1910年代라면 春園이 말하고 있듯이

「上下 貴賤을 勿論하고 所謂 義務라 道德이라 하여 一時 社會의 制裁와 公衆面目에 左右한 바가 되어 거의 壘責的 又是 表面的으로 苟且히 行動할 뿐이요. 能히 自動自進으로 自由自在하여 自己 心理를 不欺하고 道德範圍內에……人에게 義務의 念만 灌注키를 是務하여 法律·道德에만 服從키를 是求하너……」 이런 상황에 「人으로 하여금 自動的으로 孝하며, 悌하며, 忠하며, 信하며, 愛케 하기 위해서 情育을 권장한다. 그것은 「人은 실로 情的 動物이라 情이 發한 곳에는 권위가 無하고, 義理가 無하고, 知識이 無하고

道徳, 健康, 명예, 羞恥, 死生이 無하나니, 嗚呼라 情의 威요, 情의 力이여 人類의 最上權力을 握하였도다」란 觀點에 서있다.

이런 情의 발치는 西歐의 浪漫主義의 요소에 닿아 있고, 1916年の 「文學이란 何오」中 「文學과 感情」의 項으로 이어진다.

西歐의 浪漫主義가 16세기의 「낭만적 이상」을 찾아 모든 언어에 依한 叙事詩에 관심을 가지고 세익스피어를 숭배하고 게르만의 神話와 民衆의 歌謠에서 幻想的 寫實主義와 民族主義의 경향을 띠고(獨逸) 나포레온의 몰락과 영국의 승리에 수반된 社會的인 혼란을 거쳐 國民的 傳統으로의 복귀, 가난과 農村生活에의 동정, 獨創性 예찬등이 그 주조였다(영국). 거기다가 精神的 작성, 서정취미, 個人主義를 특성으로 한 위에 作家의 社會的 使命의 自覺(佛)이란 특성과 연관지을 때, 春園은 진실로 이런 자각이란 입장에 서있다. 上記 引用文에 강하게 나타나는 情育은 이 時論보다 6년후에 쓰여진 「文學이란 何오」의 발상에 가까이 가 있다면, 그것은 재비판의 가치를 일단 지닌다. 곧 本格的인 文學論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開化思想의 時論으로 나타난 이 글이 後期文學論으로 再闡明, 深化 論述되는 점은 春園의 깊은 開化意識 또는 近代化의 기수로서의 자부심과 사명 의식을 나타내는 지속성이요, 一年후의 「無情」의 출현은 다른 하나의 변용이다. 말하자면 春園의 批評이 광범한 社會批評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때, 이 「今日我青年과 情育」은 春園의 이러한 면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 初期文學論의 예라 할 수 있다.

V

「文學의 價値」(1910)

「今日我青年과 情育」보다 한달 늦게 쓰여진 이 글은 筆者 自身の 말대로 그때까지 我韓文壇에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었던 종류의 글로써 「今日我青年과 情育」과는 性格이 판이하다. 「今日我青年과 情育」이 복합적 사회비평의 性格을 띤 개화론이라면, 「文學의 價値」는 그와는 다른 文學의 本質을 따질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글이다. 즉 「文學이란 何오」의 母胎가 여기에 있고, 「文學이란 何오」가 「懸賞小說選考餘言」의 골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이야기는 가능하다. 그것은 첫째 이 글에서 文學의 定義를 내리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文學이란 何오」가 literature의 의미를 前述하고 이 서구적 개념인 「文學」에서 東洋의 儒敎的 文學觀을 매도한 것과

는 달리 여기서는 東洋의인 것과 西洋의인 것의 비교적인 입장에 선다.

「東洋은 氣候 不調하고, 土地 不毛하여 生活이 困難한 土地가 多한 故로 衣食住의 原料를 得함에 汲汲하여 智와 意만 중히여기고, 情은 賤忽히 하여 此를 배척하며 無視하여 온 故로 情을 主하는 文學도 한 遊戲疎間에 不適當에 알아 온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其實 6年後 西歐 일변도로 나온 「文學이란 何오」를 예보하는 중요한 發言이다. 또

「生物이 존재함에는 食料가 필요함과 같이 人類의 情이 生存함에는 文學이 필요할지며, 또 生할지라. 更言컨댄, 人類가 知가 智가 有하므로 科學이 생기며, 또 필요한 것과 같이 人類가 정이 有할진댄 文學이 생길지며, 또 필요할 지라」

이런 「情」의 강조는 「文學의 價值」를 거쳐 「無情」으로 발현되는 核이다. 다시 말해서 春園의 많은 소설이 「연애지상주의적 한계」에 머문 중요한 그 核의 탄생이 여기서 발견된다. 물론 그의 애정소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自由戀愛思想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의 初期 小說이 이 연애문제를 끈기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논설들은 그의 初期 文學作品 「무정」, 「사랑」등을 이해하는데 시사적이다.

둘째로 文學이 무엇인가란 문제를, 古來 우리의 文學이란,

「情的 分子를 包含한 文章」이라 전제하고, 그 정의가 紛紛하여 「詩歌·小說」등도 文章의 一部分이니 此等에는 特別히 文藝라는 名稱이 있다고 말하고 昔日의 詩·歌·小說은 다만 銷閑遺閑의 娛樂的 文學에 不適當하다고 본것과는 달리 오늘 날의 文學을 「元來 文學은 다만 情的 滿足, 즉 유희로 생겨났으며, 또 多年간 如此히 살아왔으나, 漸漸 此가 進歩·發展함에 反하여는 理性이 添加하여 吾人의 사상과 理想을 지배하는 主權者가 되며 人生問題 해결의 擔임자가 된지라……」는 見解는 文學의 原論, 곧 유희본능설이나 쾌락설에 닿아 있다. 물론 이런 면을 비교문학적 과정에서 영향사로만 처리한다면,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文學의 발전이 지속과 횡적인 영향에서 진전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從來의 文學을 一個 娛樂으로 思惟하니 참 慨歎할 바로라」라고 경고하고 今日的 西洋 文明이 온 것은 뉴턴의 신학설, 다윈의 진화론 와트의 증력 발명이다. 그런데, 그 根源은 文藝復興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春園의 文學觀이 뚜렷이 명시되는 一項이다. 佛의 大革命도 佛國 革新文學者 루소의 영향이며 美國의 노예해방도 포스터氏 등 文學者의 힘이다. 그래서 文學의 힘을 다음과 같이 극단론으로 끌고 간다.

「一國의 興亡 盛衰와 富強貧弱은 全히 그 國民의 理想과 思想如何에 在하나니 其 思想과 思想을 支配하는 者一 學校 教育에 有하다 할지나 學校에서는 다만 智나 學할지요, 其外는 不得하리라 하노라. 然則 何오 曰 「文學이 나라」

이런 힘의 文學의 주장,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흙」을 위시한 春園文學의 一貫된 文學觀으로 나타난다.

「文學의 價値」는 知·情·意 中에서 意의 강조로 나타난다. 「文學이란 何오」에서

知→直理→科學者

情→美 →文學者, 藝術家

意→善 (또는)義→宗教家, 道德家

란 분석대로 한다면 宗教的인 面, 道德的인 面의 강조로 나타남으로써 春園의 初期 文學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것도 「文學이란 何오」에 오면 前述한대로 情의 강조로 나타남으로써 지속성 있는 知性的 소유자가 못됨을 부지중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藝術과 人生」에 와서는 文學과 宗教의 융합이란 측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제 제기에 그침으로써 체질화된 신념의 소유자가 못된 면을 역시 노출하고 말았다.

VI

① 「無情」을 文學史의인 각도에서 가치를 評價할 때, 그것은 우리 문학의 지속성과 변화와의 상호 보족적 측면에서 어프로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無情」자체가 民衆意識을 지니지 못했다는 기준설은 그만 두고라도, 文學이란 何오」를 外來 영향사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同一한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② 「懸賞小說選考餘言」을 韓國最初의 近代的인 文學論의 一片鱗으로 보기는 어렵다. 「文學이란 何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③ 「文學이란 何오」는 春園의 全 文學의 原型으로 모든 作品에 主題意識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면은 「文學이란 何오」「今日 我青年과 情育」「文學의 價値」로 단편적으로 나타났고 「文學이란 何오」에서 深化體系化되었다. 그리고, 이런 理論은 1917年 「無情」으로 具體化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을 넘어서면서 그의 文學觀과 作品의 실체는 변모한다.
(1975. 7.)

《參 考 文 獻》

- 李光洙全集 1. 16. 17卷(三中堂 1962年)
金允植：近代韓國文學研究(一志社 1972年)
成賢慶：「無情」과 그 以前小說(語文學 32)